

신령한 예배
전국일동 양성
만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현금! 믿음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2)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에는 현금에 대하여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직대로 현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우시라' (제18장 1조), "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와 대외국과 그 밖의 자선 사업을 위하여 분배할 것임"(제18장 3조)라고 명시함으로써, 현금의 용도를 복음전파와 영혼구원 그리고 신앙교육과 구제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지도자들의 현금 사용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현금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이 사용되는 항목들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불분명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각 부서의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먹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이러한 지출을 피하고 현금 본래의 목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

제직 사진첩 배부

이번 주일, 제직을 대상으로, 한가구당 한부씩만 수령

이번 주에는 제직 사진첩을 모든 제직들에게 한 부씩 배부한다. 제직 사진첩은 교도철첩 5주년 단위로 제작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출간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 동안 변동이 있었던 제직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수정해서 발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아무쪼록 제직 사진첩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영적 교제가 풍성하여 지기를 바란다.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 16일(토) 3 - 6교구 / 18일(목) 7 - 10교구

2001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 주간충현 8면 참조

지난 수요일에 만났지

"흔들리지 않는 신자" (사 62:1~8)

시 62편은 다윗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고백처럼 들려지고 있다. 고난! 그것은 언제나 모든 이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삶을 흔들며 놓는 도전이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그리고 박박은 결코 신자를 꺾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깊은 물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늘의 은총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한다(롬 5:1~3).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를 늘 따라다니는 뿔 수 없는 벗이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에게 관습이 없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했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까지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야 했었다. 그 까닭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느님만 바라오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노라. 오직 찬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영광을 얻어하나니"(삼 18:2).

그가 이렇게 말했다. "크게 영광이 아니하리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첫 번째는 두루한 마음이 있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조함'이고, 다른 하나는 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전적인 신뢰'이다. 하나님께는 다윗과는 다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요동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면서 '내가 조금은 무엇인가를 해마한 한다'고 믿고 있다. 기적할 때가 있다. 다윗은 두루한 재물을 부정한데 위선에 빠지지 않았다. 또한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지도 않았다. 그는 '잠잠히'(in silence), '오직 그만'(He only)이라고 외치기를 뿐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을 흔들며 놓는 것들이 무엇이었나? "남여자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포를 연방처럼 하려나라 저가 그들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증거하여 이로써는 죽복이요 속로는 저주라"(사 62:3~4). 마귀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며 놓는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게수하게 하니라"(대사 21:1).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다. 그는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었다(그리스도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나 그는 마귀의 요동계 함에 들어갔다. 마침내 다윗을 게수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일을 갹배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대사 21:7). 또한 벰노는 예수께 칭찬을 받은 즉시 십자가를 부인하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어 예수께 심한 질책을 받았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마 16:23). 이 밖에도 가룟 유다가 마귀의 요동계 함에 미혹되어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기억하라! 인간은 불만을 버거나 칭찬을 받거나 기쁨을 잃거나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며 만드는데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한다. "고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무니 다미 삼갈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행전 5:8~9).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며 놓는 것은 마귀만이 아니다. 첫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요동케 만들었고, 특별히 죄는 원함과 질투를 유발시킨다. 성경에 보면 대의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흔들며 놓는 자들 모두 원함과 질투에 빠진 자들이었고, 그 까닭이 그들은 권리와 전령에서 모두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원함과 질투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였다. "회개하느니라 소리를 높여 귀를 막고 일심으로 어찌게 멸망되는 성에 내리고 돌로 칠새 중인들이 웃을 벗어 입을 벌려서 천의 빛 앞을 두루나"(행 7:57~58). 진실로 죄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사람을 패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정복보다도 우월적인 우월성이 강력한 정복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가장 지독한 목적이 되곤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키니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2).

하나님의 백성을 요동케 하는 것은 마귀와 죄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필박! 필박은 하나님의 백성을 요동케 하는 요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사건이 그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큰 회장이 여호와의 명대로 싣 관하여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큰 물이 없는지라"(출 17:1). 잠시 반는 고된 단지 물이 없다는 장간의 고통이 문제였다. 안타깝게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식들을 간성내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네게 하시며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마르는데는 그 한 가지를 모른대셨다. 마귀와 인간이 놓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광방 하느님의 모든 베품에 대한 감사 부활에 그와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 구원은 원함과 고통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맛' 또는 '모리바'로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무었음으로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냐 하였으니라"(출 17:7).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며 놓는 것이 신앙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는가? 음을 힐끔해 했던 것은 정직 그의 친구들이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힐끔해 한 것은 세제자녀들 베드로였다.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마자 말리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무작정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경의 강해를 믿어 말한 것이었다(대사 21:4). 더구나 아보라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보다(행 21:11, 22). 그런데 바울의 성품은 이들과 전혀 달랐다. "너희가 그에게서 술이나 배움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갈바 받음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 도대체 누가 성경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는가? 한 성경에서 어떻게 각각 다른 말을 하신다는 말인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다시 오소 하나님과 바울은 믿음으로 되돌아왔다(시 62:5~8).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것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에 있었을 것은 모든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 환히되고 또 환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능히하는 행해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신학 필름

구속언약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을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의 약속은 아담에서부터(창 3:15) 노아(창 9:8-11), 아브라함(창 15:18), 모세(출 19:5-6) 그리고 다윗에 이르러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주신 메시아의 약속으로 구약에 포함됩니다(삼하 7:8-16).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따라 '대가 차매'(갈 4:4)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속언약으로 '구속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맺은 인약으로 인간구원을 위한 대속을 조건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전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딤후 1:9), 이들을 성자에게 유익하셨으며(마 6:37-40),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삼후 2:13).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성도 영원 전에 예정되어(엡 3:11) 성육신 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었습니다(빌 2:6). 이 언약에서 성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대가로 되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는 새로운 생명을 대한 보증을 되십니다. 그러나 죄악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물이 되어 고통의 제사로 드러내야 했습니다(히 10:14). 예수님이 이 약속에 응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마땅히 인간은 하느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롬 5:6-11).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이며, 십자가가 주는 평안은 주는 이유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인기(목사, 예배부지도)

Sinful Nation

(1 Kings 21:5-14)

"Then the two worthless men came in and sat before him; and the worthless men testified against him, even against Naboth, before the people, saying, "Naboth cursed God and the king.

So they took him outside the city and stoned him to death with stones.

Then they sent word to Jezebel, saying, "Naboth has been stoned, and is dead."

King Ahab was a very bad king who reigned over Israel in Samaria twenty-two years.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of Israel, the time under King Ahab was prosperous. Israel wa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rich. They had good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 wisdom of king Ahab led him to marry the princess of Sidon, Jezebel. Sidon was a harbor city which increased Israel's trading business. Ahab's marriage to Jezebel also made Israel religiously rich. They incorporated the Sidonians worship of Baal, Asherah, and many other foreign gods. They built all kinds of different temples, and Israel believed in God and other gods. The other gods brought them earthly blessings, so Israel praised the earth. The people of Israel gave credence to king Ahab because of Israel's wealthy position. They believed king Ahab was leading their country well. They believed their affluence and abundance over other nations was due to his leadership. As such, the king's authority and softened leadership made everybody respect him.

Jezebel tried to kill all of Israel's prophets. She persecuted the prophets of God to open the way for the other gods to make their country rich. Elijah killed 850 of her prophets (18:19, 40). He brought Israel's sin, combining God's worship with Baal worship, to the forefront. He showed Israel the power of God, and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fell on their faces; and they said, 'Th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18:39). All of Israel believed God was the only God, not other gods. But Ahab still believed in Jezebel.

In today's Bible passage, Ahab wants some property that belongs to Naboth. Naboth refused to sell his property to the king. Why? Because God forbade such transactions (Lv. 25:23). The land was not Naboth's to sell, it was God's, and Naboth respected God's Word. Ahab should have known this, but his mind centered on his own enjoyment. Even though Ahab already owned more land than he could ever use, he wanted Naboth's property. His palace was well established, but greed changes people. It makes them want more than they need. As king of Israel, Ahab should have never asked Naboth for his vineyard, he should have been the one telling the Israelites not to sell their property. But instead, he was sullen and depressed over the matter (v. 5).

After Ahab told his wife, a Gentile, about the matter, she encouraged him (vv. 6-7). Her encouragement was evil and against God. Jezebel was

a cursed woman (2 Kings 9:34). Ahab listened to this cursed woman, instead of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To him it didn't really matter if it was a cursed woman, God, or whoever, so long as he got everything he wanted. He takes whatever he wants without concern over what is right or wrong. And here, he took from a cursed woman something that was totally evil.

The queen made a clever plot to obtain Naboth's land. She sent letters to the elders and nobles who were living with Naboth and used Ahab's name and seal for authority (v. 8). She asked them to "proclaim a fast and seat Naboth at the head of the people; and seat two worthless men before him, and let them testify against him, saying, 'You cursed God and the king' Then take him out and stone him to death" (vv. 9-10). Jezebel saw to it that the procedure used to kill Naboth was technically according to the law (Dt. 17:5-6). The elders and nobles were men who read the Bible all the time and lived with God's Word. Not only that, they knew Naboth because they lived with him. They knew he was a man who lived with God's Word and practiced his faith. But all these leaders were afraid of the king and queen. They were afraid of their political, religious, and economical power. They were afraid of earthly things.

The elders and nobles were among the 7,000 people who did not kneel to Baal (19:18). Naboth was also one of the 7,000 people who did not worship other gods. But the elders and nobles changed after they received Ahab's letters. The voice in the letters is not Jezebel's, it is theirs. Jezebel made the circumstances, the elders and nobles formed the opinions. These people didn't fear God. They feared the king. They knew Naboth's faith but they were hypocrites. Look at the witnesses. They are worthless men. In the original Hebrew the word "worthless" is translated as sons of Belial. In other words, these witnesses were not Israelites but Gentiles who worshipped other gods. They were not trustworthy or good people. Yet, the elders and nobles accepted their testimony. They should have told these liars that they were very bad and Naboth was very good. They should have killed these two men for false testimony (Dt. 13:6-9). But instead, they killed Naboth (v. 11).

These elders and nobles were truly bad people. They respected wicked and corrupt people. They claimed to believe the Word of God but they didn't practice their beliefs. They practiced the bad queen's letter (vv. 12-13). When they received the political

power and reputation that came with their titles, they placed earthly power over and above God's power. They had no true evidence, only false documentation. They should have defended Naboth, but they didn't. All the neighborly men of Naboth stoned him to death. "Then they sent word to Jezebel, saying, 'Naboth has been stoned and is dead'" (v. 14). Why? Because earthly power was more important to them than God. What a sad nation. In human eyes, they are good. Their titles of elder, noble, and king give them fame. But in God's eyes their actions are cursed. They are far away from the Word of God. They accept things for their own benefit and enjoyment.

How about you?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Do you really believe that He died for you? He asks us to deny ourselves. Did you every deny yourself or do you just do things for your own greed? Do you praise the earth instead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Look at yourself. Can you see how sick you are? Can you see how you are decaying? At the end of chapter 21 we find Ahab confessing his sin (v. 27). He worshipped both God and other gods. You cannot have both. Either you go the wide way or you travel the narrow way. That's God's Word.

God is telling us to cleanse our hearts and live as born again Christians. But how do we live? I think we are worse than these Israelites. Our eyes look to the world for value, so we can compromise anything. We already have experience. God is only one God. Jesus is our only Redeemer. Yet, we still hold on to money and are concerned about how other people think about us. The Israelites' knew Elijah won in his battle against the other gods. Their mouths confessed God is the only God. In just a short time they turned to believe other things. They became afraid of the king and queen. They became afraid of losing their jobs or lives. But Jesus said,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Me." That's the only way we can go to the kingdom of God.

God blessed us with this freedom. Compared to our circumstances prior to World War II, we are really rich. We should look at our position. Let's stop for a moment, come to the cross, and repent. We need to pray, "Lord, I'm sorry I joined other things. Cleanse my heart. Let me deny myself, take my cross and only follow you. I need you Lord. Help me Lord to practice your Word and praise only You, the One who gave His son to die for me". Amen. 



김성관 목사

죄로 물든 민족

(창상 21:5~14)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뭇이 돌에 맞아 죽었다나이다 하니”

아합이 이룬 국가적 변명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던 아합은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국가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부유했고, 다른 나라들과도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지혜롭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교역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준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교적인 융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시돈의 종교, 즉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많은 이방의 신들을 천했습니 다. 그래서 이세벨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서로 다른 신전들을 건축했고,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 다.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세속적인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아합 왕을 신임했습니다. 그들은 아합 왕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부유한 이유가 아합 왕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왕의 권위와 부자라는 지도력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이 신뢰하는 것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꾀박하였고, 다른 이방 신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18:19,40). 그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 속에 바알의 예배를 혼합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바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예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라 예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라 하니”(18:39).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은 여전히 이세벨을 믿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찬 아합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합 왕이 나뭇의 소유를 갖기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뭇은 그의 소유를 왕에게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팔고 사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레 25:23). 그 땅은 나뭇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나뭇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고 따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자신의 만족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나뭇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의 궁전은 잘 건설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탐심은 사람을 파멸됩니다. 원래 탐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원하도록 만듭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은 나뭇에게 포도원을 절대로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팔지 말 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일로 인해 오히려 근심했고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5절).

탐욕의 성취만이 중요한 아합

아합이 이방인이었던 아내에게 이 일을 맡겼고 그녀는 왕을 격려하였습니다(6,7절). 그녀의 격려는 사악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

세벨은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왕하 9: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이 저주받은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합에게 있어서 여자는, 하나님이고, 그 어떤 사람도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 다. 그는 무엇이 좋고 그논지에 대한 판단 없이 원하는 것만을 취하던 그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여인으로부 터 아주 사악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악한 모략의 왕비 이세벨

왕비는 나뭇의 땅을 빼앗기 위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나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아합의 이름과 인장을 이용하였습니다(8절). 왕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뭇을 백성 가운데 놀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되(9-10절).” 이세벨이 나뭇을 죽이기 위한 방법은 기술적으로 올범에 근거한 방법이었습니다(신 17:5). 장로들과 귀인들은 성경을 늘 읽으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동거하는 나뭇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뭇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기 신망대로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도자들도 왕과 왕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의 정치적·종교적·경제적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관계를 두려워하는 자들

장로들과 귀인들은 바알에게 물물조를 않은 7천 명 중에 죽어 있었습니 다(19:18). 나뭇 또한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장로들과 귀인들은 아합의 편지를 받고 나서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물리지게 될 악한 음성은 이제 이세벨의 것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세벨은 상황을 만들었고 장로들과 귀인들은 여론을 조정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나뭇의 믿음을 알았지만 위선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중인 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바알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별칭의 자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 출두한 중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과 귀인들은 그들의 중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비류들이 악한 자들이며 나뭇이아말로 선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거짓 중언을 한 두 사람을 오히려 처형해야 했습니다(신 13: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뭇을 대신 처형했습니다(11절).

세상에서 진실로 악한 자들

이 장로들과 귀인들이아말로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악하고 타락한 이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왕비의 편지대로 실행했습니다(12,13절). 그 지위와 함께 타락은 정치적 힘과 존경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 위에 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증거도 없이 거짓 문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뭇을 지켜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뭇의 이웃들이 동원되어 나뭇

을 돌로 쳐죽였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뭇이 돌에 맞아 죽었다나이다 하니”(14절).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 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선합니다. 장로들과 귀인들의 직분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준 명예는 귀중한 것 합니 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행동은 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과 민족을 위해 서슴치 않고 거짓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한 길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게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정말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십니까? 아니면 탐욕을 따라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대신 이 땅을 찬양하고 있는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려보십시오. 자기 신 얼마나 병들었는지 깨닫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 빠져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21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합 왕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27절). 그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깨끗케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타락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값진 것들을 향해 있으며,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태도 우리는 여전히 돈을 거머쥔 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른 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높은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기를 부린다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참 부유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께 더 치한 위치를 원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돌이킵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대주재여, 네 죄를 도말(洗滌)하소서, 그리스도들로 하여 세상 욕망 가득한 마음을 다스리시 주 의 눈물, 주의 피로 씻어주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나를 부인하고 네 이름 세례전 십자가 절여주시 주 의 기름결을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아사되신 주 는 없이 한 순간도 결성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결한 이들을 높리시는 세상에 보 내신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주소서. 아멘”

아프리카 R국 이야기-동



권 요셉 (광성도 단기선교사)

오마르는 복음을 통해 감동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은 아랍어로 된

사영리를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마르는 사영리를 몰라라미 바라만 보고 임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산 오마르는 학교를 못 다닌 관례로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못 읽어 어쩔 줄 몰라하는 그 표정이 너무 안타쓰리워 오마르에게 나와 같이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학교를 보내줄 테니까 글을 배우라고요. 그가 글을 배우고 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마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선 집이 가난해서 집에 돈을 보내 주어야하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나와 함께 살면 가족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 됐다고 생각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핫산이라는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미 저와 4복음서를 공부했던 핫산이라는 청년은 가족들이 핫산에게 크리스천이라고 물어보자 핫산은 크리스천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오히려 크리스천을 욕하던 것입니다. 정교회 선교사님께는 세례를 받고 싶다고까지 말했었는데 말이지요. 오마르는 그런 거짓말쟁이는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아예 시작을 안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와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새 친구를 사귀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오마르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죠. 물론 가끔 찾아가는 성의는 배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저의 집을 찾아가는 오마르는 손에 커다란 가방 두 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요셉, 나야 초콜레 다냐고 싶어", 문지는 않았지만 이녀석이 글 모르는 실용을 당했었겠조. 물론 저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고, 밤새 그간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다.

그 이후로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마르에게 글과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그는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르고 고비야요, 더하기 빼기도 모르고 있었습니. 학교에 가 봐야 워낙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수는 돈을 사용해 가르쳤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있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있고 있다는 것 등등, 개념부터 넣어줘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새롭게 알아 가는 세상에 대해 기뻐했고 더듬더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엔가 지구본을 보며 실실거리고 웃다가 낄낄을 쏜 적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성경의 구약과 코란의 일부가 같은 것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놀랄게도 글을 모르는 그는 코란의 상당부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슬람식의 기도를 중단했고, 예수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개종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싫어해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들었습니다. 나와, 다른 기독교 선교사들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슬람이 왜 패배적인 교육을 시키는지는 변하지요. 진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었지만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수을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 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그 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르쳤지만 그는 납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낳았나고 부활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의 성경공부는 권태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권태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국제적 정세로 아프리카 R국에서 헌신하던 선교사들이 지난 달 모두 귀국했다. 비록 우리 총현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이 그곳에 남은 현지인들과 여러 지역들을 뒤흔든 채 모두 귀국했지만, 우리 총현의 성도들의 R국을 향한 중보기도는 멈추서는 안될 것이다.

선교는 반드시 그 사역지에 선교사가 배를 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배를 역시 복음을 전하고 재자를 양육할 후, 자신은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였고 중보로써 그들을 도왔다. 교회선교회의 헨리 벤(Henry Venn), 선교사는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 현지 사역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자신은 앞장섰을 때 그 사역지에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R국에는 우리 총현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아무도 없지만, 3년 7개월 동안 훈련받고 성장한 현지 사역자들이 있다. 그들이 선교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R국에 남겨진 모든 사역과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할 것이다.

1. 수단의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 현지인 지도자 모임을 구성해서 정교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들이 돈이나 사물에 욕심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3. 교회 내에서 부목장의 권력분쟁이 없이 복음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세계관 4

올바른 세계관을 추구하는 것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물음에 책임있게 대답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답을 모르는 사람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일한 존재이다. 책임을 지려면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세계관이 요구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요. 모든것은 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어떤 할 일 없는 학자들의 연이처럼 믿는 원이치의 화학적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르트르(J.P. Sartre)처럼 '세상이 먼저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할 수 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겠다고 속 편히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면 정말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간은 절대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

둘째, 올바른 세계관이 요구하는 것은 '나는 왜 사는가?'라는 것이다. 흔히 들는 말로 '살다보니까 어찌까지 왔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왔다는 이야기는, 나는 한번도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 본 적이 없다는 말과 같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그들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인간은 다르다. 자신이 왜 존재했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심각한 공황(恐慌)에 빠진다. 파스칼(Pascal)은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라고 했다. 물론 그는 그 구멍을 마음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과 명예나 그 밖의 욕망의 충족으로 허무를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시간만 흐를 뿐이다.

셋째, 올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질문은 'יש은 존재하는가?'라는 것이다. 영혼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본능이다. 아퀴나스(Aquinas)은 인간을 '종교적 동물'이라고 했다. 인간은 유형(有形)의 신이든 무형(無形)의 신이든 둘 중 하나를 믿게 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한다. 하지만 무신론도 신앙이다. 신앙이란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이다.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영적(靈的)존재이다. 영혼이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다. 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몇 개의 답을 갖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일일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원창덕 목사)

선교사 이야기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선교의 시작

1700년 북독일 귀족의 집에서 태어난 진젠도르프는 루터교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저자가 선교'를 조직하여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귀족가문의 전통 때문에 실제 직업을 대려지 못했다. 19살이 되던 해 진젠도르프는 유복한 여학생인 줄이 숄름 전지신학교에 입학하여 당리 고동받고 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떤 회심을 치르려다도 구세주에 대한 마음의 비를 감기로 정신했다. 진젠도르프는 신구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이 헤른후트로 들어온 기독교 피난자들을 5년 동안 돌보았지만, 많은 피난자들이 모이던 베른의 대관과 강도로 어려움에 접게 되었다. 그런 지난 성령에서 헤른후트에 강하게 인격해서 그 공동체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령의 은사로 대관과 강도는 사라졌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모라비안 선교운동이 시작되었다. 공동체 안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일 주일 내내 기도하 쉬지 않고 이어졌고 이러한 기도운동은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

덴마크 왕 크리스천 6세의 대관에서 참석했던 진젠도르프는 개종한 2명의 그린랜드 원주민과 신인도 제도에서 한 명의 흑인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진정한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다. 이로써 모라비안 교도들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진젠도르프는 선교사들을 직접 사역지로 데리고 가이 사역하고 있던 선교인들과 함께 시를 가는 등, 선교사들의 사역을 섬기고 후원하는데 헌신하여 33년을 보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평신도 자비(자비) 선교사들, 장려성 있는 개종자들과 함께 인하여 많이 아닌 신생활로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간단한 예제까지 전하였고 최선까지 전하기는 인부러 어떤 교도도 사역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후로 죽어도 양생되지는 신비한 체험을 가졌던 이들에게 이러한 신비주의는 선교사에게 해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정적 신비주의 체험만 강조하고 신의 실제적인 언행을 무시했던 모라비안들의 선교사들은 자칫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영적 신생활이 신의 인도에 있을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금교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다. (루스터커의 '선교사 열전'에서)

사랑하는 친구 수현이에게

편지로 나의 말을 투명하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구나! 우리가 서로 알게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간다. 3년이란 시간을 되돌아 보니 참 새롭고 놀라워.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수현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라도 수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나구.

“귀한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천국갈 수 있어서 다스군 우리 수현이에게 얘기해본다. 오늘은 내가 만난 귀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싶구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공복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현이도 정말로 사랑하셨단다. 우리 수현이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1학년때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니? 마늘 어둡고 힘들어 하던 나의 모습을,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용납하지 못하기가 미워하게 되고....., 내위함으로 짓는 죄들은 내 맘을 너무나 괴롭고 아프게 하더라. 하지만 날 사랑하셔서 결코 나 혼자 힘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 용납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던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그분께서는 내 안에 용납할 수 있는 맘을 주시더라, 요즘,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는 수현이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다. 방법은 하나란다. 나와 다른 이를 정의 하든, 이것만이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펼쳐버릴 수 있는 방법만이 생각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을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무너진다는 것이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 이리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가장 잘하시고, 그분만이 우리 새롭게 하실 수 있단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어, 우리는 나로부터 학교에서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 하지만 그 것들을 감당하러 너무 벅하고 어려워 짜증날 때가 많지?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로 인한 참 영안이 없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참된 목적을 몰라서,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없어서 그렇단다. 가끔은 나 또한 분노한 실 속에 처어 지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참된 영안과 실의 참된 목적, 영원한 소망이 나를 다스군 열어 낼 수 있도록 해 주더라. 주님께서 내 실의 주된 죄악이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맘은 놀아려고, 어둡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밝고 풍요로워 질 수 있어,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행복을 수현이여 함께 나누고 싶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얽매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들을 보내 주셨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어,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단다. 순간의 안일을 찾다가 무리에 가장 중요한 귀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만 안된다. 부 족한 친구지만 수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람으로 수현이를 사랑한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해인이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큰 나무들이 길을 따라 양쪽으로 끝없이 줄지어 있고, 그 나무들이 서로 엉키어 나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비치어 초록빛 나무 그늘을 만들어냈고, 그 그늘 아래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아이가 서있는 배경 뒤로 조용히 음악이 흐릅니다. 어떤 음악일까요? 그 음악에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이가 서있는 풍경을 평화롭게 볼 수도 있고, 슬프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풍경을 따뜻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외롭고 적막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 시각을 충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음악의 힘처럼,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힘이 있을까요?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다윗의 광야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으로 새워지기 이전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365일을 살아가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다. 하지만 그는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으며, 실제로 죽을 고비를 몇번이나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만을 보면, 좌절과 비탄과 속에서 절절한 삶의 단상과 길을 걸어야 할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야생활 이후의 삶은 신기하게도 저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광야생활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

습니다. “당신이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 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꽃듯한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의 강인함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단 자신을 많이 믿었나봅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닮은 분면 같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 대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방향을 찾아가기 보단, 불안해하며 광야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찾기에만 급했습다. 날 위해 준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소망하기보다는, 그저 단 하루의 안도감만을 구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구할 주님에 대한 신뢰 뿐인바 사심을 잊었습니다.

광야는 분명 우리가 위험과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직면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광야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였고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 설 희 (대학부 4학년)

주권중흥원만화 2001.10.14

No.05

{은혜소녀, 주의 길을 따라 가다}

그림: 장민

좋은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난쟁이가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 에게!!

대학부 총동원 전도집회

일시 : 11월 10일

주제 :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 전도!!

목표 : 한 영혼씩을 대학부로 인도하여 100명의 결신자를 주시오!

이 가을에 우리 대학부는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대학부에 주시는 지상최대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모이기에만 힘쓰는 대학부가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대학부가 됩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는 바로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구역 일지

말씀이 중심되어

11교구 동이촌 1,2구역



나의 연합함을 아셔서 앞서 행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동이촌 구역으로 저를 보내 주셔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하나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은 구역장의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이 시간 뒤돌아보니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늘 소극적이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치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 구역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구역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이경현 권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음악 확원을 경영하시면서 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말씀을 잘 준비하시어서 가르치시니 우리 영혼이 얼마나 살겠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끝나면 매번 하나같이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이렇게 잘 예배하고 주일 대예배때 김성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시니.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든 식구들과 한 주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구역은 기도하시는 내 분의 권사님이 계신 축복받은 구역입니다. 언제나 겸손하심이 몸에 배어 애뜻사람 설기회를 기뻐하시는 지영실 권사님, 매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드리지는 예배지만 전파드리면 꼭 예배시간을 다시 확인하시고 먼저 오셔서 기다려주시는 김은국 권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이경현 권사님, 사업으로 바쁜 중에도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해외 출장 외엔 꼭 참석하시는 박도훈 권사님, 때론 어려움이 있으실 때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욱 힘이 난다고 하시는 권사님을 뵈며 때론 나의 연합한 믿음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말씀 하나 하나 깨닫는 것이 기쁨이 되신다는 이형순 집사님, 나중엔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받으시고 1구역 구역장으로 세움을 입어 적극적으로 구역을 잘 돌아다니는 김성자 집사님, 육신의 연합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서정희 집사님, 올해 한 식구가 네 제일 어린 조명숙 권할님, 우리 구역의 귀한 한분 한분을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되게 묶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직장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 안에 경건의 모습보다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하여 주시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김세향 구역장)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정 미 나' 자매를 소개합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어렸을때 교회에 몇 번 가 보았을 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초등학교 동창 이경훈의 소개로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성경공부도 하면서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앞으로 바쁘지만 잘 나와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류 지 인' 자매를 소개합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같은 과 친구인 조현숙 자매의 인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가족이 천주교 신자이고 교회에 나왔던 적이 없어서 아직 많은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선 (대학부 새가족 통신원)

+ 양요일

6교구 동동선 성도(남57세) 갑상선암 재발로 방사선 치료 중목 부위가 타서 치료를 중단하고 한달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지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김성경(여7세) 중이염이 심해서 수술을 했으나 지난 11일 한쪽 귀를 재수술했습니다. 어린 영혼이 고통을 잘 견디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은 고통으로 지쳐서 기도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낙담치 않고 환우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필립 스페너

행동하는 신자

"신앙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를 변화케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만든다. 신앙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정신과 힘을 새롭게 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한다. 오! 이것은 새롭고 바쁘고 능동적이고 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면 계속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행할 것이 어디 없겠느냐고 묻기 전에 이미 했고, 언제나 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의 이 글은 스페너에게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말뿐이 아닌 행동하는 신자, 세상적인 환락과 물질만 좇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사모하는 경건한 신자, 연합한 세상을 이길 능력있는 신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어야 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과 신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신앙의 원리는 완전히 오택되고 있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실수와 잘못이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든 식의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죄악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의 열정적 식은 유럽의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은 더 이상 경험되지 못했다.

필립 아담 스페너는 1635년 독일의 알스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당시의 형식화되고 무기력해진 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은 사람이었다. 그에 의해서 교회가 경건되고 신자들의 마음은 다시금 경건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경건주의라고 불리게 되었다.

경건주의는 하나님의 내적인 경험을 실제적인 윤리 생활에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르침으로 삼고 있었다. 이 전통은 생생 없는 교리주의에 대항해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한다. 물론 신앙의 실천은 인간의 자연적인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임재하심을 믿을 때 나오는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 삶을 위해서 신자는 하루에 최소한 한번이라도 자신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명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 겸손과 인내, 십자가의 고난, 배신당함식, 이루 다할 수 없는 역함함, 그리고 죽음의 모습이 언제나 신자들의 마음 속에 비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경건주의의 한 세기에 걸쳐서 독일교회에 신앙적인 각성을 주고 신앙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게 했다. 여러 대에 걸쳐서 스페너의 후계자들이 영향받은 이들이 유럽 전체에 경건주의 전통을 교회의 역사에 깊게 뿌리내리게 한다.

스페너는 인기 얻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혁명가는 더욱 아니었다. 경건하고 헌신적이었지만 싸우기를 극히 싫어하고 집값도 대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 바로 그것이 그 원동력이었다.

스페너는 연합한 자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심으로 바로게 살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고 행했다. 그 능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처럼 강한 것이었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에서)

다음주일 찬송

383장 환난과 압박 중에도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허다한 증인들'이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 그들이 보지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싸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게되지 않을까.

천사자 프래드릭 윌리엄 페이버(F.W. Faber)가 1849년 런던에서 펴낸 그의 찬송가집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읊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진 후 기독교도와 순교자들이 없었던 때가 없다.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당했는 자 하면 사도 바울처럼 참영으로, 심포로스와 같이 몸이 무거운 돌을 달아 갇히나 바다에 던져서 순교 당하고 홀리암 길이 불에 타서 죽고 그 외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방법으로 순교 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이 찬송은 성도들은 환난이나 압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교자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음모 한 음모를 진지하게 가시의 길에 맞추어 부름된 진실된 찬송이 될 것이다. (천양원회)

우리식구는 모두 다섯

오 은 영 (집사, 영아부 교사)



“엄마 아빠 동생과 나 네 사람이 살지만 우리 식구 모두 모두 다섯 식구랍니다. 자나깨나 언제나 우리 둘과 주시는 주 예수님을 모시고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영아부 엄마 아빠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현규(6세)와 현수(4세)가 있는 우리 집에서도 늘 즐겨부르는 찬송 중 하나이구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 어떤 지식이나 교육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몇이일 적부터 영아부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권 에스더 (유아부 총집사 3년 교사)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인데 나는 살아 오면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을 해 왔지만, 믿음은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유아부 교사로 세워 주셨다.

나를 선생님과 불러주는 아이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만이 점점 더 드러났다. 아이들에게 자칫 나의 사랑이 가식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잘 잊었다는 핑계로 한 주 한 주 전화 안 하는 날도 늘었고, 일주일 동안 내 생활이 바쁘다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주도 늘었다. 나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나보다 더 좋은 교사가 있으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교사직분을 내놓으려 할 때마다 잔잔함으로 위로해 주신다. ‘어제

또 전화 못 했네. 어찌지? 우리 반 애들 안 오겠다’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면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 주셨다. 처음에 얼마 없는 예배를 안 드린 아이들이 이젠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릴 때, 낯설어서 말도 안 하던 아이가 웃으며 나에게 뽀뽀해 주고 집에 갈 때, 예배시간에 비록 집중은 잘 못 하지만 어느 순간 전도사님의 말에 귀 기울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매주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아이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일날 유아부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이렇게 좋으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제는, 자신은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려 한다. 유아부 교사로 9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본다.

성경의 열매

호세아(Hosea)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③

호세아서를 읽으실 때에는 전체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즉, 호세아서는 ①이스라엘의 타락, ②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또는 심판), 그리고 ③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다른 선지자처럼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되면, 먼저 그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각자 나름대로 그 의미와 부합되는 교리를 성경에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죄를 나타내는 경성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민일 ‘원한한 암소’ (4:16, 10:11)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 하나님을 향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 부분에 영감이 베풀린 송아지를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은 4:18(5:1-7), 7:4-7, 7:8, 7:11-12(11:1), 7:16, 8:9, 9:16, 10:12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타 안개, 아슬, 거, 연기로도 묘사되었습니다. 또 한 간음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도 앞에서처럼 이해하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진노는 붉은 색).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2장 3절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처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면(2:3) 광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붉은 색으로 잡초나 가시나 가득한 땅을 그려 넣으십시오. 이스라엘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4:19(8:7), 5:10, 5:12, 5:14(13:7-8), 8:1, 9:11, 10:7, 10:13, 13:13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호세아의 예언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되돌아감’, ‘복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적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2:7, 3:5, 5:4, 6:1, 7:10, 12:6, 14:1). 그러므로 이 회개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묘사는 2:15, 6:1-2(14:4), 6:3, 9:16, 14:5-8 등에 나타납니다.

호세아(Hosea) ‘여호수아’, ‘예수’와 같이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을 가진 사람!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떠오릅니다. 수지스런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대하면 죄인의 발을 깨끗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그의 고독함을 생각하면 곤경들의 마음을 한 몸이 받으셨던 주님의 외로움이 가슴에 또 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를 읽으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거부당한 그분의 아픔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이 그분의 손길에 저항할 때부터 비탄이 시작됩니다. (김동희 목사, 출판사:진도)

Catechism

3.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1) 하나님의 작정의 특색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 발생된 모든 사건들을 미리 정하신다는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에서뿐만 아니라 구속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물음 1.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엡 1:4-5).

물음 2.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면 인간의 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일까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약 1:13).

물음 3. 하나님의 작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밀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증언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목히 보충하기까지 하셨습니다(히 6:17).

(2)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은 인류의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하며,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류 중의 일부는 선택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끔 결정하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음 1.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의 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롬 9:11-13).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엡 2:8-9).

물음 2.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엡 1:5).

(오영진 전도사·고동부 부지도)

교회소식 / 새가족

말 할

- 2001년도 제5회 학습·세례식 안내
2001년도 제5회 학습·세례식은 2001년 10월 14일(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입교·개례를 하시는 성도들은 당일 당교회에서 오셨다가 오셨는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장로 회례세례기도회
일시: 15일(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 회례세례기도회
일시: 16일(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경건전도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배려아울
4. 경건전도회 월례회
일시: 17일(수) 수교부 예배 후
장소: 배려아울
5. 경건전도회 월례회
일시: 18일(목) 새벽기도 후
장소: 배려아울
6. 이매전도회 월례회 및 영성훈련
일시: 19일 18:30(목)
장소: 배려아울
7. 11교구 대안자 총합전 전도주일
일시: 오늘 14:00
장소: 교육관 213호
8. 14교구 대안자 총합전 전도주일
일시: 2001/10/15(토)
장소: 복자관 아라다눔(지하2층)

남녀전도회

1. 바울 1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복자관 4회 대안자전
2. 바울 2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배려아울 및 새가족실
3. 바울 5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교육관 2층 새가족부실
4. 바울 6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9:00
장소: 교육관 407호
5. 바울 7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배려아울
6. 바울 10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복자관 지하층
7. 바울 14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교육관 208호

8. 바울 배려아울
15회 월례회
일시: 2001/10/16(토)
장소: 복자관 4회 대안자전
9. 바울 배려아울
일시: 2001/10/16(토) 21:00
장소: 복자관 4회 대안자전
10. 배려아울 월례회
일시: 16일(화) 19:30
장소: 안원빌딩 집사회(405-0780)
11. 배려아울 월례회
일시: 2001/10/17(수)
장소: 고기리교회 신사당 식당(☎011-725-5146)
12. 한나 4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복자관 지하층
13. 한나 6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배려아울
14. 한나 7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배려아울
15. 한나 8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배려아울
16. 한나 9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배려아울
17. 한나 10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복자관 지하층
18. 한나 117회 월례회
일시: 16일(화) 19:30
장소: 교육관 213호
19. 한나 12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배려아울
20. 한나 13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배려아울
21. 한나 14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배려아울
22. 한나 157회 월례회
일시: 오늘 18:30
장소: 배려아울
23. 에스더 7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교육관 2층 새가족부실
24. 에스더 12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배려아울
25. 에스더 17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배려아울
26. 에스더 22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배려아울
27. 에스더 277회 월례회
일시: 2001/10/15(토) 19:00
장소: 배려아울

2001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10월 14일 (주말)	12:30	성경교육	교육관	교회	교육관	교육관
	13:00-15:50	(정원인 목사)	314호	(서장진 목사)	307호	307호
10월 21일 (주말)	12:30	기독교	교육관	기독교	교육관	교육관
	13:00-15:50	(정원인 목사)	314호	(이종대 목사)	307호	307호
10월 28일 (주말)	12:30	기독교	교육관	기독교	교육관	교육관
	13:00-15:50	(정원인 목사)	314호	(이종대 목사)	307호	307호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하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5시, 갈릴렘)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8:00	본당
III	오전 9:00	본당
IV	오전 10:00	본당
V	오전 11:00	본당
VI	오전 12:00	본당
VII	오전 1:00	본당
VIII	오전 2:00	본당
IX	오전 3:00	본당
X	오전 4:00	본당
XI	오전 5:00	본당
XII	오전 6:00	본당
XIII	오전 7:00	본당
XIV	오전 8:00	본당
XV	오전 9:00	본당
XVI	오전 10:00	본당
XVII	오전 11:00	본당
XVIII	오전 12:00	본당
XIX	오전 1:00	본당
XX	오전 2:00	본당
XXI	오전 3:00	본당
XXII	오전 4:00	본당
XXIII	오전 5:00	본당
XXIV	오전 6:00	본당
XXV	오전 7:00	본당
XXVI	오전 8:00	본당
XXVII	오전 9:00	본당
XXVIII	오전 10:00	본당
XXIX	오전 11:00	본당
XXX	오전 12:00	본당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8:00	본당
III	오전 9:00	본당
IV	오전 10:00	본당
V	오전 11:00	본당
VI	오전 12:00	본당
VII	오전 1:00	본당
VIII	오전 2:00	본당
IX	오전 3:00	본당
X	오전 4:00	본당
XI	오전 5:00	본당
XII	오전 6:00	본당
XIII	오전 7:00	본당
XIV	오전 8:00	본당
XV	오전 9:00	본당
XVI	오전 10:00	본당
XVII	오전 11:00	본당
XVIII	오전 12:00	본당
XIX	오전 1:00	본당
XX	오전 2:00	본당
XXI	오전 3:00	본당
XXII	오전 4:00	본당
XXIII	오전 5:00	본당
XXIV	오전 6:00	본당
XXV	오전 7:00	본당
XXVI	오전 8:00	본당
XXVII	오전 9:00	본당
XXVIII	오전 10:00	본당
XXIX	오전 11:00	본당
XXX	오전 12:00	본당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8:00	본당
III	오전 9:00	본당
IV	오전 10:00	본당
V	오전 11:00	본당
VI	오전 12:00	본당
VII	오전 1:00	본당
VIII	오전 2:00	본당
IX	오전 3:00	본당
X	오전 4:00	본당
XI	오전 5:00	본당
XII	오전 6:00	본당
XIII	오전 7:00	본당
XIV	오전 8:00	본당
XV	오전 9:00	본당
XVI	오전 10:00	본당
XVII	오전 11:00	본당
XVIII	오전 12:00	본당
XIX	오전 1:00	본당
XX	오전 2:00	본당
XXI	오전 3:00	본당
XXII	오전 4:00	본당
XXIII	오전 5:00	본당
XXIV	오전 6:00	본당
XXV	오전 7:00	본당
XXVI	오전 8:00	본당
XXVII	오전 9:00	본당
XXVIII	오전 10:00	본당
XXIX	오전 11:00	본당
XXX	오전 12:00	본당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8:00	본당
III	오전 9:00	본당
IV	오전 10:00	본당
V	오전 11:00	본당
VI	오전 12:00	본당
VII	오전 1:00	본당
VIII	오전 2:00	본당
IX	오전 3:00	본당
X	오전 4:00	본당
XI	오전 5:00	본당
XII	오전 6:00	본당
XIII	오전 7:00	본당
XIV	오전 8:00	본당
XV	오전 9:00	본당
XVI	오전 10:00	본당
XVII	오전 11:00	본당
XVIII	오전 12:00	본당
XIX	오전 1:00	본당
XX	오전 2:00	본당
XXI	오전 3:00	본당
XXII	오전 4:00	본당
XXIII	오전 5:00	본당
XXIV	오전 6:00	본당
XXV	오전 7:00	본당
XXVI	오전 8:00	본당
XXVII	오전 9:00	본당
XXVIII	오전 10:00	본당
XXIX	오전 11:00	본당
XXX	오전 12:00	본당

총현중보의창

- ① 성경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경에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고, 언제나 복음의 전파를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시어 주수시.
- ② 감한원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음의 전파에 불붙게 하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정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신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 ④ 총현중보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성취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총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고백하며,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소식은



2001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 금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책임자와 같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0-11월 중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2001년 1월-9월
- 대상기관: 각 지역별 산하 부서/단, 남녀 전도회는 제외
(군·경찰·교정·산업·이민·형무 등 특수전도회는 본 감사문을 수감함)
- 제출서류: 기산표(2001년 9월말까지 전체산표), 감사·재무·인사·조직·회계·법률·사회·환경 또는 예금통장(영장 포함)
- 감사실시기간: 2001년 10월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 감사실시장소: 제1교구본 208호 감사위원회실(K354)

이매원 전도회 봉사자 모임

문의: 조소영 부회장(☎02-421-4881)
장년2부, 10월은 총동원의 달
시간: 10월 한달 동안 매주 12:30
장소: 교육관 314호

장년3부, 10월은 총동원의 달

시간: 10월 한달 동안 매주 12:30
장소: 교육관 307호

중동부원 '심와 찬양의 밤'

시간: 27일(토) 17:00
장소: 코노나아(제2교구관 1층)

예배마루 차량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예배마루 주일 학생예배(오전9시-11시30분)를 총괄하는 장로들 상임봉사로 자원봉사를 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구분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락처
교회-성도부	오정기	1교구	1교구	1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교구	2교구	2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3교구	3교구	3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4교구	4교구	4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5교구	5교구	5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6교구	6교구	6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7교구	7교구	7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8교구	8교구	8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9교구	9교구	9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0교구	10교구	10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1교구	11교구	11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2교구	12교구	12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3교구	13교구	13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4교구	14교구	14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5교구	15교구	15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6교구	16교구	16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7교구	17교구	17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8교구	18교구	18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19교구	19교구	19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0교구	20교구	20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1교구	21교구	21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2교구	22교구	22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3교구	23교구	23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4교구	24교구	24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5교구	25교구	25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6교구	26교구	26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7교구	27교구	27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8교구	28교구	28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29교구	29교구	29교구
교회-성도부	오정기	30교구	30교구	30교구

세·가·족·을·한·영·하·나·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락처
792	황지규	1	베드로	김정준(1)
793	김준배	1	루디아	김정준(1)
794	정지훈	4	베드로	김정준(4)
795	최정훈	5	청년부	최정훈(5)
796	오순자	8	루디아	806 김준자
797	박화서	8	한나	807 박정현
798	오정숙	10	한나	808 박정현
799	황정현	13	대학부	809 황정현
800	김준식	17	베드로	810 김준식
801	한재승	19	청년부	811 한재승
802	김도형	19	청년부	812 김도형
803	이지현	19	청년부	813 이지현
804	이영자	9	베드로	814 이영자
805	유정호	9	청년부	815 유정호
806	김준자	19	청년부	816 김준자
807	박정현	19	대학부	817 박정현
808	이규상	19	청년부	818 이규상
809	황정현	19	대학부	819 황정현
810	김준식	10	청년부	820 김준식
811	박정현	19	대학부	821 박정현
812	김도형	19	청년부	822 김도형
813	이지현	19	청년부	823 이지현
814	이영자	9	베드로	824 이영자
815	유정호	9	청년부	825 유정호
816	김준자	19	청년부	826 김준자
817	박정현	19	대학부	827 박정현
818	이규상	19	청년부	828 이규상
819	황정현	19	대학부	829 황정현
820	김준식	10	청년부	830 김준식
821	박정현	19	대학부	831 박정현
822	김도형	19	청년부	832 김도형
823	이지현	19	청년부	833 이지현
824	이영자	9	베드로	834 이영자
825	유정호	9	청년부	835 유정호
826	김준자	19	청년부	836 김준자
827	박정현	19	대학부	837 박정현
828	이규상	19	청년부	838 이규상
829	황정현	19	대학부	839 황정현
830	김준식	10	청년부	840 김준식
831	박정현	19	대학부	841 박정현
832	김도형	19	청년부	842 김도형
833	이지현	19	청년부	843 이지현
834	이영자	9	베드로	844 이영자
835	유정호	9	청년부	845 유정호
836	김준자	19	청년부	846 김준자
837	박정현	19	대학부	847 박정현
838	이규상	19	청년부	8